



KOTRA 워싱턴 D.C.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(화/목) 배포합니다.



📌 주요 내용

🎯 워싱턴 D.C. 포커스

- (환율)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에 따른 주요 교역국 환율정책 평가 2
- 주요 교역국을 관찰 대상으로 유지하며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감시 및 분석 기준 강화

📊 경제통상 동향

- (관세) 美, 對인도 관세 18%로 인하 및 대러 원유 수입 연계 관세 철회 발표 5
- (관세) 美 수입업체, CBP의 '전체 가치 철강 관세 부과는 위법' ITC에 제소 6
- (핵심광물) 트럼프 행정부, 120억 달러 규모 '전략 핵심광물 비축' 프로젝트 출범 7
- (입법) 美, EU CBAM 대응 PROVE IT Act 통과 8

🏛️ 의회법안 동향

- 예산안, 대법원, 관세 등 하원 발의 법안 총 4건 9

💬 이시각 헤드라인

-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9
-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10

📅 워싱턴 D.C. 주요일정

2.3(화)	• 12월 신규 고용발표(지연발표) (Job openings [delayed due to shutdown])
2.4(수)	• 1월 S&P 미국 서비스 PMI (S&P final U.S. services PMI)
2.5(목)	• 1월 5주 실업수당신청건수 (Initial jobless claims [delayed due to shutdown])
2.6(금)	• 1월 고용보고서 (U.S. employment report [delayed due to shutdown])

(환율)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에 따른 주요 교역국 환율정책 평가

1. 개 요

□ 미 재무부, 「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」* 발표(1.29)

* 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

- 재무부는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, '24.7월~'25.6월 기간 동안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을 평가한 반기 환율보고서 발표
 - 동 보고서는 ▲1988년 종합무역경쟁력법 ▲2015년 무역촉진·집행법에 근거하여, 미국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환율 조작 여부 및 모니터링 필요성 점검
- 재무부는 환율조작국으로 신규 지정된 국가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나, 동 보고서를 통해 환율 및 거시경제 정책 전반의 감시·점검 기초 강화 시사
 - 환율보고서 평가 결과, '25년 6월 보고서에 이어 환율조작 판단을 위한 3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심층분석(enhanced analysis) 대상국은 없는 것으로 판단
 - 태국을 약 3.5년 만에 환율 관찰 대상국(Monitoring List)으로 재지정하고, 기존 모니터링 대상국(중국·일본·한국·대만·싱가포르·베트남·독일·아일랜드·스위스)은 유지
 - 재무부는 동 보고서를 통해 △ 대상국과의 환율정책 협의 추진 △ 외환시장 개입 분석의 정교화 △ 향후 환율조작국 지정 시 대응조치 강화 가능성 등을 언급

〈미 재무부 환율조작국 판단을 위한 3대 기준〉

구분		무역촉진·집행법상 세부 평가 기준
대상	주요 교역국	▶ 양자 교역총액 상위 20위 국까지
요건	무역수지 흑자	▶ 최근 4개 분기 기준 對美 상품·서비스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
	경상수지 흑자	▶ 국내총생산(GDP)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% 이상
	외환시장 개입	▶ GDP 대비 2% 이상 규모의 외환시장 수매·수매 개입이 연중 8개월 이상 지속

※ 상기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

[자료: 미국 재무부(U.S. Department of the Treasury)]

2. 상 세

□ 주요 교역국에 대한 환율·외환 정책 평가

- (한국) 교역촉진법 3개 기준 2개(경상수지 흑자, 대미 무역 흑자)*를 충족하여, 지난 '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이후 3회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유지

* 한국 평가: 對美 무역흑자 520억 달러(○), 경상흑자 GDP 대비 5.9%(○), 시장개입 -0.4%(X)

- '25년 하반기 원화 약세는 한국의 경제 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움직임으로 평가하면서, 외환시장 제도개선과 국민연금-한국은행 간 외환스왑이 원화 변동성 완화 및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한 점을 언급

▣ [참고] 미 재무부의 對한국 환율정책 평가(원문)

- (원화 약세 판단) "The won depreciated further in late 2025, which was not in line with Korea's strong economic fundamentals."
- (외환시장 개입) "Korea's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s were aimed at smoothing excessive volatility rather than targeting the exchange rate for competitive purposes."
- (외환스왑) "A foreign exchange swap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the Bank of Korea helped mitigate won volatility during periods of heightened market stress."

- (중국)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.2%로 확대되고, 대미 무역흑자 2,46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대외 불균형이 지속·확대되고 있다고 평가
 - 재무부는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은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, 환율정책 및 외환시장 개입 관련 통계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 강조
 - 국영 금융기관 등을 통한 공식·비공식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, 향후 가용한 증거가 확인될 경우 환율조작국 지정 검토 가능성 시사
- (일본) 재무부는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며,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주로 해외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기인하고 있다고 평가
 -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은 과거 엔화 강세 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, 최근 ('22~'24년)에는 엔화 약세 저지를 위한 개입에 주력해 온 것으로 평가
 - 재무부는 개입 양상의 변화를 감안하여,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분석 시 통화 강세·약세 저지 여부를 모두 고려하는 방향으로 분석 기준 일부 조정

〈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항목별 주요국 평가〉

국가	경상수지		대미 무역	환율시장 개입	
	GDP 대비 (%)	최근 3년 경상수지 변화폭 (GDP 대비, %)	흑자 (십억 달러)	최근 4분기 (GDP 대비, %)	달러 순매수 8개월 지속
멕시코	-0.3	0.8	178	0.0	X
캐나다	-0.9	-1.2	29	0.0	X
중국	3.2	1.1	246	-0.4-0.2	X
영국	-2.8	0.1	-27	0.0	X
독일	4.9	-0.4	84	0.0	X
일본	4.6	1.6	65	-0.8	X
아일랜드	10.2	-0.3	68	0.0	X
스위스	8.1	0.4	46	0.7	O
한국	5.9	2.3	52	-0.4	X
인도	-0.5	1.4	59	-2.0	X
대만	15.0	0.1	100	0.7	X
베트남	6.4	8.0	147	-0.7	X
네덜란드	8.1	0.5	-76	0.0	X
프랑스	-0.3	-0.1	21	0.0	X
싱가포르	18.0	-1.8	-26	3.1	O
이탈리아	1.0	1.2	45	0.0	X
브라질	-3.6	1.4	-32	-1.9	X
호주	-2.3	-3.5	-23	0.0	X
태국	3.8	7.0	54	0.9	O
말레이시아	1.6	-1.1	28	-0.3	O
(참고) 유로지역	2.1	0.9	150	0.0	X

※ 적색 표시 :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충족

[자료: 미국 재무부(U.S. Department of the Treasury)]

□ (현지 반응) 환율조작국 지정은 유보, 환율 감시·분석 기준 강화 추진

- 환율조작국 신규 지정은 없었으나, 미 재무부가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분석 기준과 감시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·정교화한 점을 핵심 변화로 평가
 - 기존의 통화 강세 저지 중심의 외환시장 개입 분석 범위를 강·약세 전반으로 확대하고, 개입의 대칭성(symmetry)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 제시

■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정연호
■ 자료원	재무부(1.29), 폴리τικο(1.29), 로이터(1.29)

(무역통상) 美, 對인도 관세 18%로 인하 및 대러 원유 수입 연계 관세 철회 발표

- (개요) 미국과 인도는 對인도 관세를 25%에서 18%로 낮추고,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연계되었던 25% 추가 징벌관세 철회 방침 발표
 - 트럼프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미국산 5,000억 달러 규모 구매, 對미 관세 인하,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등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나, 인도 정부는 세부 조건과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은 자제한 상황
 - 합의 발표 직후 인도 루피화와 증시가 동반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, 그간 경색됐던 미·인도 통상 관계 완화 기대도 커지는 모습
- (상세) 관세 조정으로 대미 수출 여건 개선 기대...대규모 구매 등 합의 구체화 필요
 - 관세 인하로 미국의 對인도 관세율(18%)은 일부 아시아 국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, 인도 노동집약 업종(섬유·가죽·신발·보석 등)의 대미 수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 제기
 - 한편 인도의 대미 수입 규모(연간 500억달러 미만)를 고려할 때, 5년간 5,000억 달러 구매 약속은 기존 프로젝트를 포함하더라도 달성이 쉽지 않다는 분석 제기, 적용 품목·일정·비관세장벽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
 -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관련해서는 인도 측이 에너지 조달 다변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, 민간 기업의 개별 조달 결정까지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유지
 - 현지 언론은 양측이 실제로 관세·비관세장벽을 의미 있게 낮출 경우 상호 교역 및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도, 세부 품목·규제 완화 수준이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평가

■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김준희
■ 자료원	블룸버그(2.3), 인사이드(2.2), 로이터(2.2)

(관세) 美 수입업체, CBP의 ‘전체 가치 철강 관세 부과는 위법’ ITC에 제소

- (개요) 미 업체, 관세국경보호청(CBP)의 50% 철강 관세 부과 기준에 소송 제기

- Express Fasteners Ltd., 미국 관세국경보호청(CBP)이 수입품의 철강 함량 기준*이 아닌 전체 제품 가치에 50% 관세를 적용했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(1.27)

* 철강·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50% 부과 포고령 부속 지침에는 전체 제품 가치가 아닌 ‘철강·알루미늄 함량(value content)’에만 관세가 적용된다고 명시('25, 6.3)

- (상세) 전체 제품 가치에 대한 CBP의 철강 관세 부과는 위법으로 관세 환급 요구

- 원고에 따르면 CBP는 '25년 12월 비공개 CBP 내부 메모(CEE Memo)*에서 가공·노무·공장 간접비·이윤까지 모두 철강 함량으로 간주하도록 규정, 자사 제품인 기계용 나사·볼트·너트 등 철강 파생제품 전체 가치(full entered value)에 50% 관세 부과

* CEE: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내 기저금속 우수·전문성 센터

- 또한, CBP는 비철강 부품 가공비·노무비도 철강 부품으로 분류해 추가 관세 부과
- 원고는 CBP가 철강 파생상품 전체 가치에 부과한 50% 철강 관세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며, 국제무역법원에 △철강 함량 기준으로 재평가(reliquidation), △초과 납부 관세 환급 및 이자, 소송 비용 등 추가 구제 요청
- 동 소송 관련 국제무역법원(CIT) 판결에 따라, CBP 비공개 내부 지침의 법적 효력 여부 및 향후 다른 수입업체 유사 소송 제기 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
■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문현주
■ 자료원	폴리티코(2.2), 소송장(원문)

(핵심광물) 트럼프 행정부, 120억 달러 규모 '전략 핵심광물 비축' 프로젝트 출범

- (개요) 트럼프 행정부, 핵심광물 비축 프로그램 'Project Vault' 출범 발표
 - 트럼프 대통령, 제조업 공급망의 안정성 강화 및 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해 12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핵심광물 비축 프로젝트 'Project Vault' 출범을 발표(2.2)
- (상세) 민간 제조업 대상 미국 최초 민간 '핵심광물 전략 비축 시스템' 구축
 - (재원 구조) 미국 민간 제조업을 위한 사상 최초의 전략 비축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미국 수출입은행(EXIM)의 100억 달러 대출과 16.7억 달러의 민간 투자로 구성
 - * 미국 수출입은행 사상 최대 규모 금융 지원 승인
 - (대상 광물) △핵심 광물(희토류, 갈륨, 코발트 등), △자동차, 반도체, 항공우주용 전략 금속, △에너지, 첨단 IT 스마트폰, 전기차, 항공기 엔진 등 핵심 제조 분야 소재
 - (운영 방식) 참여 기업이 향후 일정 물량·동일 가격으로 광물 구매를 사전 약정하는 가격 고정(price lock) 메커니즘으로 운영→Project Vault가 해당 광물 조달·보관, 기업은 금융·보관 비용 부담, 필요시 적립 재고 사용 가능, 공급 위기 시 전략 인출 허용
 - (참여 기업) GM, Stellantis, Boeing, GE Vernova, Corning, Google 등 10 개사, 원자재 조달·관리는 Hartree, Traxys, Mercuria 등 3개의 글로벌 무역업체가 담당
 -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통제 강화에 따라 △중국 의존도 축소, △가격 안정화·변동성 억제, △핵심광물 공급망 충격 및 미국 제조업 생산 차질 완화 강조
 - 미 수출입은행은 'Project Vault가 제조업 핵심 원자재 안정 공급 보장, 중국 공급망 의존도 축소 등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·안보 전략을 실현하는 혁신적 구조' 라고 언급

▪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문현주
▪ 자료원	블룸버그(2.2), 미 수출입은행(2.2)

(입법) 美, EU CBAM 대응 PROVE IT Act 통과

- (개요) 크레이머 상원의원 PROVE IT 법안, DOE 탄소배출 비교 연구 의무화
 - 美 의회가 2026 회계연도 에너지·환경 예산안(minibus)에 탄소집약도 비교 연구 지시 조항을 통과시킴에 따라, 美 정부의 자국 제조업 제품 탄소배출 산정·비교가 본격화될 전망
 - 동 조항은 H.R.6938 상무·법무·에너지 세출법안의 일부로 2026년 1월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되었으며, 향후 미국의 탄소 기반 무역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
- (상세) G7·FTA국·중국 등 비교 평가, 내년 1월 결과 제출
 - DOE, 美·G7·FTA 파트너·우려국·주요 시장국 생산 탄소 비용 비교 분석할 예정이며, 알루미늄·시멘트·철강·플라스틱·비료·유리·리튬이온배터리·제지·풍력터빈·원유·정제유·LNG·수소·핵연료·정제 핵심광물 등 광범위한 품목군이 대상
 - 크레이머 상원의원, "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과 협력해 보고서 정례화 및 통상정책 편입 추진"을 언급했으나, EU CBAM은 생산국의 탄소세 여부에 따라 관세를 차등 적용하므로 연방 차원의 탄소세가 없는 미국의 대응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
 -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(NETL), DOE 산하에서 연구를 주도하며, 관련 기관·학계·싱크탱크와 협력할 계획, 연구 결과는 2027년 1월 제출 예정으로 향후 연방 에너지 프로젝트의 탄소집약도 평가 기준 마련에 활용될 전망
- (반응) 미국 제조업계는 자국 산업 보호 기대, 일부 공화당은 탄소세 도입 우려
 - 美 제조업계는 "세계 최저 탄소 제품"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데이터 기반 반박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, 향후 무역 협상에서 차별적 조치 대응 수단으로 평가
 - 공화당 내 일부는 "미국 내 탄소세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"는 우려를 제기하나, 일각에서는 본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중심 통상정책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평가

▪ 작성자 | 워싱턴 D.C. 무역관 James Lee

▪ 자료원 | International Trade Today ([1.29](#)), 폴리τικο ([1.27](#)), 크레이머 상원의원 ([1.27](#))

의회법안 동향

구분 (현행일)	법안 (발의일)	대표 발의자	법안 및 주요 내용
예산안 (1.30)	H.R.7295 (하) (1.30)	Blake Moore (공)	<종합 예산 수립 및 조정개혁법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회의 연간 종합 예산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, 예산 투명성·책임성·위원회 간 조정 강화를 목표로 한 개혁안
대법원 (1.30)	H.Res.145 (하) (1.30)	Tom Barrett (공)	<연방 판사 임기 제한을 위한 헌법 수정 결의안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방 대법원 및 하급 법원 판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미국 헌법 수정안을 제안하는 결의안
관세 (1.30)	H.R.7276 (하) (1.30)	Mark Amodei (공)	<양모 및 어린양 제품 수입관세 조정법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호주 또는 뉴질랜드산 양 및 어린 양 제품에 30% 관세 부과하는 법안
관세 (2.2)	H.Res.147 (하) (2.2)	Gregory Meeks (민)	<브라질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종료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5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의 브라질 정부 위협(인권·표현 자유 침해 등)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(EO, 40% 관세 부과)를 국가비상사태법 제202조를 통해 종료 상원 S.J.Res.81(케인 발의) 통과(2025.10) 후 하원 대응

* 미국 동부 시간 2월 3일 15시 모니터링 기준

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The Wall Street Journal	<p><u>House Approves Measure to End Partial Government Shutdown</u> (美 하원, 부분 섯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안 가결)</p> <p>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은 부분 섯다운을 종료하고 10일간의 이민 단속 논의를 개시하기 위한 예산안을 217:214로 가결. 당내 반발로 무산될 수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반대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승인을 이끌어내</p>
The Washington Post	<p><u>Pentagon warns Scouts to restore 'core values' or lose military support</u> (펜타곤 “스카우트 ‘핵심 가치’ 회복하지 않으면 군사 지원도 끝”)</p> <p>스카우트(구 보이스카우트)는 소녀들의 가입을 허용하고 포용성을 강조하기 위해 스카우팅 아메리카로 리브랜딩한 이후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표적이 돼. 잼버리를 몇 달 앞두고, 펜타곤은 핵심가치를 회복하지 않으면 미군과의 파트너십을 잃을 것이라는 공개 경고장을 날려</p>
The New York Times	<p><u>Trump's Kennedy Center Shutdown Plan Jolts Workers and Performers</u> (트럼프 ‘케네디 센터 폐쇄’ 발표로 충격에 휩싸인 공연 예술업계)</p> <p>트럼프 대통령이 올 7월부터 개보수를 위해 케네디 센터를 2년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며 센터 소속 수백명의 노동자와 공연이 예정되어있던 예술가, 티켓을 예매한 관객 등은 혼란에 휩싸여. 전 케네디 센터장은 센터 폐쇄시 티켓 판매 뿐만 아니라 기부자들도 잃게될 것이라고 우려해</p>
CNN	<p><u>PepsiCo is cutting the price of Doritos, Cheetos and other snacks by up to 15%</u> (‘도리토스·치토스’ 최대 15% 싸진다)</p> <p>전통적으로 간식 구매량이 늘어나는 슈퍼볼을 앞두고, 도리토스·레이스·치토스 등 인기 과자를 생산하는 PepsiCo는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는 고객들의 불만에 대응해 최대 15%까지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해. PepsiCo는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 빈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</p>
USA Today	<p><u>How much are Super Bowl tickets? Prices drop for Patriots vs. Seahawks</u> (패트리어츠 대 시호크스...슈퍼볼 티켓은 얼마?)</p> <p>티켓 판매업체 StubHub에 따르면 가장 저렴한 슈퍼볼 티켓은 \$4,937로 지난해 대비 2천 달러 가량 하락해. 가장 비싼 티켓은 \$40,207에 달하며, 평균 리셀가는 \$6,000~8,000선으로 분석돼</p>

* 미국 동부 시간 2월 3일 16시 기준

워싱턴 D.C. 무역관 공지사항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**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 : [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6-05	트럼프 정부의 IEEPA 관세 대안으로 수입 면허제 활용 가능성 검토	2026.2월
US26-04	트럼프 행정부 출범 1주년 경제·통상 성과 및 현지 평가	2026.2월
US26-03	2026년 주요 통상 일정과 미국 통상정책 환경 변화 전망	2026.1월
US26-02	유엔과 세계은행이 전망한 2026년 세계 경제 및 정책 제언	2026.1월
US26-01	2026년 글로벌 핵심 리스크와 미국 정책 환경 변화 전망	2026.1월
US25-51	골드만삭스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주요 내용 및 시사점	2025.12월
US25-50	美 2026 국방수권법(NDAA)로 살펴본 미국 국방정책 방향	2025.12월
US25-49	미·중 경제안보 검토 위원회(USCC) 의회 연례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	2025.12월
US25-48	워싱턴 국제무역협회 'Trade & Tech Summit' 내용 및 시사점	2025.12월
US25-47	세계무역기구(WTO) 개혁을 둘러싼 미국의 인식 전환과 통상 질서 변화	2025.12월
US25-46	2026년 USMCA 공동재검토 주요 일정 및 3국 입장과 현지 평가	2025.12월
US25-45	2025년 백악관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특이점과 경제무역 함의	2025.12월
US25-44	美-中 반도체 디커플링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	2025.12월
US25-43	트럼프 정부, 미국형 소버린 AI 구축을 위한 『제네시스 미션』 출범	2025.12월
US25-42	美 연방 대법원 IEEPA 관세 재판 동향 및 트럼프 관세 플랜 B 전망	2025.11월
US25-41	美 연방정부 섰다운 종료 및 예산 합의 관련 주요 동향	2025.11월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**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 : [유튜브 KOTRA TV](#))

인터뷰 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시-25 (2026.1.24.)		
코인시-24 (2026.1.23.)		

문의	이메일	전화
	jwshim@kotra.or.kr	+1) 202-857-7919
	shim.nature@kotra.or.kr	